

술과 더 발전된 과학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는 점 등에서 전통적 자연관과 현대과학의 자연관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대과학에 바탕을 둔 기술문명을 도입하고자 하는 한, 우리는 현대과학적 자연관으로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을 대체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현대과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문화전통을 포기하고 서구화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연과학 그 자체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 특수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학이나 논리학이 보편적이면서 문화적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듯이 자연과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자연관을 제시해 주지만 우리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란 현대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과 가치관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숙명론적이고 미신적인 종교신앙에서 자유롭게 되고, 형식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도덕생활에서 탈피하며, 생활 전반에 있어서 더욱 더 합리적인 풍토와 태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우리의 문화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먼저 그 지식의 내용을 우리의 일상언어로 설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현대과학에 부합되는 것들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새로운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어야 할 학자들, 예술가들, 종교인들, 기업인들 및 행정가들에게 현대과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현대과학의 지식내용을 보편화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과학자들 자신뿐이다.

科學의 大衆化를 위한 하나의 接近策

漢陽大新聞學科 玄 源 福

우리나라의 科學大衆化運動의 효시는 1930年代에 遼原의 불같이 번져 나갔던 科學知識普及運動이었다. 各界各層을 網羅한 指導層 人士들이 參與하고 民族紙의 強力한 支援를 받은 이 運動은 一般의 큰 呼應을 얻어 推進되었으나 수 3년이 못되어 日帝의 彈壓으로 霧散되고 말았다. 民族的인 自覺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그 推進方法이나 內容에 있어서 敎訓的인 記錄을 남겼다.

50年代末에서 70年代初까지 美蘇의 宇宙競爭을 둘러싼 國內言論의 報道競爭은 비록 周知的인 性格을 넘지 못했다 치더라도 一般의 科學에 대한 關心 또는 理解를

크게 增進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70年代부터 政府는 科學技術風土造成事業을 活發하게 展開하고 있다.

지난날의 科學大衆化운동에서 注力해 온 것은 科學思想의 理解보다는 技術利用의 長點이었다. 이리하여 科學技術이 가져오는 物質的인 惠澤만을 지나치게 強調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科學技術은 萬能이라는 생각을 심어 놓았다. 그러나 科學은 萬能이 아니며 限界가 있는 것이다. 科學的인 洞察力으로 人間의 모든 經驗을 證明할 수가 없다. 科學은 完全하다는 뜻은 萬能이라는 뜻과 다르다. 科學은 完璧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科學과 人間관계는 疎遠해졌다. 科學研究에서 人間의 直感과 非合理的인 推理가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사실은 科學이 지극히 人間的인 學問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科學史나 科學哲學을 통해 科學과 人間의 간극을 좁히는 大衆化방법이 필요하다. 또 科學的인 接近方法만이 合法的이고 合理的인 것이라는 주장은 科學大衆化의 커다란 障礙因이 되고 있다. 科學技術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중의 일부를 해결하는 데 가장 強力한 手段을 提供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眞理에 이르는 유일한 通路는 아니다. 이런 주장은 科學에 대한 半意識的인 抵抗感을 造成하여 科學에의 理解를 막는다.

우리는 일찌기 우리의 傳統的 價值觀이나 倫理觀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西歐文化 中の 價值觀은 배격하되 科學技術만을 受容하자는 이른바 「東道西器論」을 제창해 왔다. 그러나 科學技術이 미치는 영향은 모든 分野에 걸쳐 衝擊의으로 深化되어 가고 있다. 科學의 大衆化는 종전의 啓蒙的인 태두리를 넘어 科學技術이 社會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문제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다.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에 變化를 가져오는 科學技術에 대해 마땅히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非西歐社會에서 科學技術은 본디 갖고 있는 社會的·文化的 傳統으로부터의 急進的인 斷絶을 強要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올바른 科學의 理解는 이런 社會的인 危機를 克服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立法과정에서도 科學技術이 관련된 法案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지난 年末 제98회 定期國會가 통과시킨 法案중 工業配置法案, 農業管理法案(改), 海底礦物資源開發法案(改), 工業標準化法案(改), 環境保全法案, 醫療保護法案, 海洋汚染防止法案, 麻藥法案(改), 電氣通信法案(改) 등 많은 法案은 科學技術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 이런 法案은 社會生活과도 直接·間接으로 깊은 關聯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쉬운

말로 풀이하고 分析해서 一般에게 알려 주는 일이 중요하다. 法案은 專門家의 손에 맡기는 것이 常例이지만 專門家들이라고 해서 個人的인 偏見이나 格別한 關心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 科學技術이 關聯된 法案에 關心을 가진다는 것은 科學에 대한 理解를 도울 뿐만 아니라 國策에도 도움이 된다.

科學의 大衆化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手段은 科學을 하나의 文化로서 理解하는 것이다. 大學生이 科學史나 科學概論을 敎養科目으로 選擇하고 藝術家가 雜誌의 分子生物學에 관한 記事에 關心을 갖고 法律家가 텔레비전을 통해 宇宙生成의 神祕를 본다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을지 몰라도 科學과 人文學 間에 벌어지는 간극을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심심할 때 藝術이나 文學을 즐기듯 장차 科學도 그 대상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理解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이들은 대개 社會의 指導層이나 또 장차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길게 볼 때 社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科學의 大衆化는 大衆媒體의 協力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有能한 解説家와 電波프로그램의 製作者 없이는 그 效果를 기대하기 어렵다. 科學을 理解시키는 데 있어서 科學者 스스로의 參與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當局이나 科學界가 大衆媒體의 協力을 일방적으로 期待만 할 것이 아니라 獎學制度나 研修制度를 통해 評論界에서도 有能한 科學解説家나 프로그램製作者, 그리고 評論家를 輩出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方法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건강에 관한 한국인의 지식, 태도 및 실천양상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고교실 맹 광 호

1. 서 론

의학은 인체의 형태나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의 영역에 드는 소위 기초과학분야를 그 중요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술적 영역에 속하는 임상의학, 그리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활동을 포함한 의학의 사회적 적용 즉 의료부문이 그 주종을 이루므로써 과학의 사회화에 관한 한 어느 과학분야보다도 그 단위를 함축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의학이 학문적 관심에서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또 실제로 그래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기초의학분야의 연구업적 말고도 궁극적으로는 의학이 갖는 중요한 효율성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연구집단의 건강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이들의 상병율을 낮추고 사망을 줄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학은 바로 그 사회적 적용 즉 의료를 통해서 이 일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란 어디까지나 주는 자와 받는 자—좁은 의미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면의 일방적인 양이나 질의 확장만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질병은 그 유형을 자기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질병이나 건강에 관한 일반대중의 특정가치와 태도, 행동양식 및 지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발전 기술, 그리고 인력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서로 크고 작은 차이점을 갖게 마련이다. 세계적인 의료경제학자인 V.R. Fuchs (1974) 교수 같은 이는 “각 주민 간 (인종간)의 건강수준차이는 의료의 질이나 양에 의한 차이보다 사회경제적·문화적 변수에 관여되는 바가 더 크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특히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이에 대한 건강행동양식의 차이는 의료의 효율성, 나아가서는 전체 건강수준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Cornely & Bigman, 1961; Hochbaum, 1958)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시설과 인력에 있어서 절대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절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경제력이 낮은 것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의료시설이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허정 외, 1975; 이성진 외, 1974; 맹광호, 1977 등) 실제로 의료시설의 이용상태를 보면 건강의식이랄지 관습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정경균, 1976; 구인철, 1978; 송진환, 1976 등)

예컨대 오랜 세월을 두고 한국인의 생활습관 속에 자리잡아 온 다원적 의약관이라든지 무속적 인간의료 관행은 현대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인의 질병관, 의약관